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2강 예수님은 누구신가?

I. 들어가는 말

1.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하는 개론적인 문제를 고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내러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2. 찬송가 9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1절)”

-여기서 예수님은 만능 해결사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입니다.

-찬송가 80장-181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찬송들은 매우 다양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친구 예수님(88절), 자론의 꽃 예수님(89장), 기쁨과 소망되신 예수님(95장)....

3.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소개하는 책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1-2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1:1-18은 요한복음 전체 서문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시작인 1:19부터 보겠습니다.

II.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1:19-34)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 세례 요한 자신이 말하는 자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유대인들: “네가 누구냐?”

1)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로 다윗 계열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해서 질문한 말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모세 다음가는 인물로, 선지자의 대표 자격이며, 종말에 나타날 인물입니다(말 4:5).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막 1: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왕하 1:8)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런 종말론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 ‘그 선지자’도 아니다(25절). -‘그 선지자’는 종말에 나타날 모세와 같은 인물(신 18:15-22)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25절).-소리는 말씀과 대비됩니다. 말씀이 본질이라면 소

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세레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로귀환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소리(사 40:3)로 규정합니다. 즉 자신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 메시아나 종말론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레 요한은 종말에 나타날 인물이 아니다.

=세레 요한의 역할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19, 34절): 19, 34절이 수미쌍관을 이루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고, 같은 어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며 신랑의 들러리였습니다(3:29-30). 모든 크리스천 사역자의 역할도 세레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2. 세레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는

1)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29절; cf. 36절).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바울(고전 5:7,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도 예수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세레 요한은 예수가 유대인들만의 예수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혹은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2) 세레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30절).

-이것은 예수의 선재(先在)를 말합니다.

-즉 예수가 세레 요한의 선배라는 것인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으로는 세레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창조에 동역한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의 선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신적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58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선재를 선포합니다.

3)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33절).

-구약에는 말세에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 부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겔 36:25-27; 율 2:28-32). 곧 예수는 종말을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세레 요한이 자신의 역할로 부정했던 역할이 주어진 분입니다.

4) 하나님의 아들이시다(34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적 인물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시 2:7). 곧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1:18에 나오는 “독자”(유일하고 독특한 아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쓴 것입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세레 요한의 증언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종말론적 인물 메시아다.”입니다.

III. 예수의 첫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1:35-51)

1.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41절)
-이것은 예수 제자들에게서 나온 첫 번째 예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39절)
2.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45절).
-이것은 한 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3. 나다나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49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의 첫 제자들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예수 자신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50절)
-“이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1) 51절에 나온 내용, 즉 예수가 하늘과 땅의 중보자라는 것? 2) 2장에서 예수가 행할 표적(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3) 모든 예수의 표적?: 그것이 어떤 것이든 “더 큰 일”이란 기본적으로 나다나엘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메시아 이상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51절)
-여기서 인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연결된 분으로 나옵니다.(창 28:12의 야곱의 사닥다리).
-좁게는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요, 넓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3:16; 4:41)입니다.

IV. 예수 자신이 표적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수(2:1-25)

1. 예수는 새 포도주다(1-12절)
-가나의 혼인 잔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 마리아의 중재적 역할입니까(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2)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입니까? 3) 율법적 종교에서 영적 종교로 갱신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어머니에게 일반 여성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구나이”(여성에 대해 높여서 부르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가 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또 어머니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표적은 단순히 종교를 개혁하는 일도 아닙니다.
-11절의 “나타내시매”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는 표적을 행

함으로 “그[예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예수는 하나님처럼 영광이 그 안에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는 보통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심층적으로 보면 예수야말로 새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좋은 포도주”는 예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새 시대에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할 포도주입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를 마셔야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참 포도주입니다.

2. 예수는 새 성전이다(13-22절).

-유대 전통에서 성전과 하나님은 거의 동일시됩니다. 본문에 인용된 시편 69:9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예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16, 17절): 이것은 장사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보통 유대인의 말이었다면, 이 말은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가 이 땅을 성전 삼고 살기에(1:14), 이제 예수가 곧 새 성전입니다. 이제 건물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4:24).

-요한복음에서는 거룩과 관련된 모든 예식과 개념이 예수로 대체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른바 “대체 모티브”(replacement motif)가 있습니다.

-예수는 새 포도주, 새 성전, 새 이스라엘(목자, 포도나무)입니다.

V. 요한복음 서시에 나오는 예수(1:1-18)

1. 요한복음 서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오페라의 서곡, 저택의 대문 등등: 한 마디로, 서곡은 본 곡의 분위기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시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렌즈 혹은 본문 핵심 교리의 요약입니다.

2. 서문에는 여러 칭호가 나옵니다.

1) 로고스(말씀)(1-3, 14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든 창조자

2) 생명, 참 빛(4-5, 9절):

-이것은 당시 발흥하던 영지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오히려 그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 중 하나가 빛이었습니다. 빛은 대개 깨달음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만이, 또 예수와 관계해서만이 생명과 빛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득도, 견성, 깨달음이 생명이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3) 성육신하신 분(14절):

-이것은 전통적인 신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을 성전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동사는 “장막을 치시매” 혹은 “성전을 삼으시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곧 하나님인 예수가 이 땅을 성전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17절)

-초기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메시아]라는 것입니다.

5) 독[생]자(14, 18절):

-요한복음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별되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전에는 “스스로 탄생하신 분”(독생자)으로 이해했으나, 많은 연구 결과 현재는 “유일한 아들, 독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6) 하나님(1, 18절):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가장 놀라운 언명입니다. 도마의 고백(20:28)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프롤로그에서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VI. 적용과 실천

1. 요한복음 1-2장이 제시하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신적 메시아다. -단순히 인간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신이다.
- 2)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다. -가짜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이제 자신이 이 땅에 “거하는” 성전이다.
- 3) 대속을 통한 구원자다. -그는 속죄양으로 희생당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 4) 중보자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분이다.
- 5)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이다.
- 6) 예수가 엘리야요, “그 선지자다”: 모든 종말론적 인물이 예수 안에 수렴된다.
- 7) 새 포도주요, 새 성전이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로 대체된다. 신자는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를 먹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 예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다.

- 1) 세례 요한도 독립적인 역할이 없다. 말씀인 예수를 전달하는 소리다.
- 2)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 앞에서 하나의 여성 제자이다. 예) ‘구나이’: 여성
- 3) 예수의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3.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다.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 예수다.

- 1) 다음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등록금이 없다;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 회사가 부도났다; 아이 우유값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2) 다음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마음이 아프다; 병이 났다; 귀신들렸다; 외롭다; 친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구원을 받고 싶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4.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새 포도주요 새 성전으로 기쁨을 주신다.

-예수가 신적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는 죄에서, 인습에서 구속하시어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기에, 이 예수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며, 새 성전에서 신자는 메시아 왕국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VII. 나가는 말

1.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3-4장을 중심으로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